

## 법무매거진

# 새 헌법재판관 후보 27명 심사 동의... 14일까지 의견 수렴



오는 3~4월 퇴임할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천거 명단에 총 6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14일까지 후임 재판관으로 누가 적합한지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지난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67명의 법조인이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은 27명이다. 법관이 18명, 변호사가 7명, 교수가 2명이다. 이 중 여성은 5명이다.

대법관과 재판관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문홍수 변호사가 다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창훈 춘천지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각급 법원장 중에서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장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병수 대전고법판사,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이승택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이현 홍 의 법무법인 변호사, 이홍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최철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교수 중에는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 심사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법원은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심사동 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및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대법원은 의견수렴과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

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중 외부 인사로 최 전 인권위원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 참여한다.

(출처/뉴스스)